

# DMZ유해 발굴 지역 지뢰 제거 시작

남북 군사당국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각각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자가 채택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1일 "9·19 군사합의의 일환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한다."며 "JSA 지역에서는 남북이 각각 자기측 지역에 대해 1일부터 20일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는 30일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공병부대 병력을 투입해 JSA 남측 지역 동측과 서측의 수풀지역, 감시탑 주변 지역 등에 대해 지뢰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되면 남, 북, 유엔 사령부로 구성된 3자 협의체가 가동되어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의 규정 마련을 논의하게 된다.

남북은 JSA에서 무장하지 않은 남·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 병사 30명)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형태를 복원하기로 했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 정신에 따라 MDL 표시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지만, 19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시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가 각각 분리됐다.



그후 양측 경비병들은 기본적으로 권총으로 무장하고 근무를 서고 있다. JSA를 통한 탈북자가 발생했을 때 북한 경비병들은 AK-47 등 자동화기를 사용해 대응한 바 있다.

지뢰 제거와 함께 DMZ에 묻혀 있는 한국전 전사자 유해발굴도 이날 시작될 예정이다.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원활한 유해발굴을 위해 시범 발굴지역 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 공사도 시작해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지뢰 제거와 도로 공사에는 공병대 1~2개 대대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전기, 통신선로가 설치되고 유해발굴 공동사무소도 들어선다. 공동사무소는 남북 공동 유해발굴단의 공동조사 등을 위한 협의 공간이다.

후전 직전인 1953년 중공군과 국군 사이에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화살머리고지 일대에는 국군전사자 유해 200여 구,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서울 택시요금 5년 만에 오른다 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 추진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4,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 기본요금은 3천원이다. 또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택시 노사민정협의체는 2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서울시에 최종 보고했다.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체적인 요금 수준이나 내용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협의체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택시요금 인상 시 운전자 처우개선 수준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택시요금 정책을 검토해 서울시가 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많은 시급 1만 148원으로 확정했다. 택시민정협의체는 이 같은 서울시의 생활임금에 맞춰 택시요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인상해 택시기사의 월 생활비를 285만 원에 맞추는 방안이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

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된 상태다. 그간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소득 증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본요금 인상 폭과 심야할증 시간은 최종적으로 시가 결정한다. 시는 향후 시민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달 20일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가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요금 인상은 이르면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을 인상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 승차거부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